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팔랑개어장놀이

○ 일 시 : 1995. 10. 11 ~ 13 (3일간)  
○ 장 소 : 충남 공주시 공설운동장



경 상 남 도  
거 제 시



# 팔랑개 어장놀이

## ◎ 유 래

팔랑개 어장놀이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팔랑포마을에서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풍어를 기원하는 어장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배신굿과 풍어제를 병행한 민속놀이로 배를 바다에 진수(進水) 할 때나 그물을 처음 바다에 넣을때 고사형식으로 지내는 민속놀이입니다. 이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팔랑개 어장놀이는 조선조 태조때 부터 능포를 중심으로 옥포(팔랑포) 등지의 포구에서 출어전에 바닷가에서 마을 잔치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옛 부터 맛좋은 대구, 청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촌으로 여기서 잡히는 고기는 임금님께 진상 되었다고 합니다.

팔랑포는 임진란때 이충무공께서 맨 처음 왜적을 무찌른 옥포만 입구에 자리잡은 마을로서 30여호가 어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 ◎ 특 징

팔랑개 어장놀이는 일정한 날이 없이 어장터에 나가기 전에 온 마을 남녀노소가 다 모여 마을의 번영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반드시 매구패와 함께하여 흥을 돋구어 줍니다.

## ◎ 놀이기구

통구맹이배, 그물, 도리깨, 가래, 깃발, 바구니, 모조고기, 농악기구, 등입니다.

## ◎ 구 성

팔랑개 어장놀이 보존회 채동출 회장 외 84명이 출연 합니다.

남자 30명, 여자 55명인 이 놀이팀은 매구패 13명, 선주와 선주부인, 그리고 무녀 2명, 어린이 3명, 어부 15명, 부녀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랑개 어장놀이는 제 1 마당 ~ 제 5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 첫째 마당 (질굿놀이) 입니다.

고기잡이 나갈 어구들을 손질하는 어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구패들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불러모읍니다.

주민들은 그물을 손볼 바늘, 도리깨 등 어구를 가지고 매구패를 따라 선창가로 나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매구 : 긴 질굿, 짧은 질굿(질군악)]

● 제 둘째 마당 (도리깨 놀이) 입니다.

선창에 쌓인 그물을 넓게 펼치어 찢어진 곳을 바늘로 꿰매고 그물에 붙어있는 불가사리 등 이물질을 도리깨를 이용하여 털어냅니다. 수선된 그물을 어구와 함께 배에 실는 동안 매구패는 작업에 따라 다양한 가락을 쳐줍니다.

(매구 : 춤매구, 연풍제, 덧뵈기)

● 제 세째 마당 (용왕제) 은,

어구를 배에 실은 후 어부들은 배를 보고 서서 합창을 하고 절을합니다. 이때 무당은 용왕신에게 뱃길이 무사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 달라는 것을 합니다. 굿이 끝나면 배는 바다로 서서히 떠나가고 어부들과 주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매구 : 신나는 춤 매구가락)



● 제 넷째 마당 (그물소리) 은,

배가 출어를 하면 어부들은 노를 젓고 그물을 펼쳐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히라고 어부들은 풍어가를 부릅니다.

(매구 : 늦은 삼체가락)

(후 렬)

(선

창)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어허 영청 어허야

우 리 어 부  
 물 때 맞 취  
 저 건 내 라  
 갈매기 한 쌍이  
 동 방 이  
 가 자 가 자  
 양지암 밖으로  
 우 리 어 부  
 손 을 골 고 루  
 달 가 름 과  
 그 물 을 골 라  
 들 물 인 양  
 물 때 맞 취  
 노 를 저 어  
 들 물 에 는  
 썰 물 에 는  
 동 북 간 이  
 이 물 에 는  
 그 물 코 가  
 양 지 암 을

선 인 들 아  
 준 비 하 소  
 양 지 암 에  
 신호를 한다  
 가 렌 가  
 어 서 가 자  
 나 가 보 자  
 선 인 들 아  
 골 라 서 소  
 별 가 름 에  
 코코에 신고  
 썰 물 인 양  
 배 를 띄 워  
 배 띄 워 라  
 들 물 맞 이  
 썰 물 맞 이  
 밖 았 으 니  
 손 고 드 소  
 삼 천 코 니  
 쌍 서 녕 자



● 제 다섯째 마당 (가레마당 만선놀이) 입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은 배는 만선기를 쫓고 선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배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만선이요」 하고 외치면 어부들은 고기 펄 준비를 하고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배가 선창에 닿으면 가레를 이용하여 고기를 퍼 올립니다. (이때 손발을 맞추기 위해 가레 소리를 합니다.)

(후 렬)	(선 창)
어허 여루 가래야	어 허 여 루 가 래 야
어허 여루 가래야	어 허 여 루 가 래 야
어허 여루 가래야	이 가 레 가 뉘 가 렌 가
어허 여루 가래야	우 리 선 인 가 레 로 다
어허 여루 가래야	우리 배 선주는 재 주 가 좋 아
어허 여루 가래야	장 대 끝 에 다 고 기 를 쫓 고
어허 여루 가래야	장 대 끝 에 다 땡 기 를 쫓 고
어허 여루 가래야	색 색 강 변 에 돌 자갈 실 었 다
어허 여루 가래야	사 리 는 사 리 대 로
어허 여루 가래야	마 리 는 마 리 대 로
어허 여루 가래야	시 내 경 문 에 덤 마 을 치 고
어허 여루 가래야	은 하 수 가 흘 러 간 다
어허 여루 가래야	황 해 수 도 흘 러 간 다
어허 여루 가래야	이 살 도 실 고 저 살 도 실 고
어허 여루 가래야	이기야 디기야 저 어 저 어 라
어허 여루 가래야	어 허 여 루 가 래 야